

월간 주요 이슈 3

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3. 2. 15.)

국표원-소비자원 「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」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

-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진종욱)과 한국소비자원(원장 장덕진)은 영·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해외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,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『소비자 안전주의보』를 15일 발령하고,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.

[미국 CPSC 사고접수 사례]

- ◎ 14개월 영유아,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
- ◎ 17개월 영유아,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

-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,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(안전인증)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
-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.
-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
-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,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·판매*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
- *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 제30조(중개 및 구매·수입대행 금지)에 따라, 안전인증(안전확인)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·수입 금지
- 소비자원은 KC 인증(안전확인)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·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